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22일(현지시각) 스페인 바야돌리드의 호세 소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바야돌리드와의 올해 마지막 정규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관중석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메시 91골 '불멸의 신화' 쓰다

69경기 출전 경기당 평균 1.31골 ... 해트트릭만 4번

40년만에 한 해 최다골 신기록 세우고 2012년 마감

리오넬 메시의 역사적인 한 해가 마무리됐다.

메시는 22일(이하 현지시각) 스페인 바야돌리드의 호세 소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바야돌리드와의 올해 마지막 정규리그 경기에서 터뜨린 1골로 2012년의 골 행진을 마감했다.

이날 끝까지 메시는 2012년 한 해 동안 69경기에 출전, 91골을 터뜨렸다. 경기당 1.31골이다.

독일의 게르트 뮐러가 보유한 유럽 리그 한 해 최다 골(85골) 기록을 40년 만에 넘어

섰다. 올해 메시의 역사적인 기록이 시작된 곳은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장 캄프누다.

1월4일, 오사수나와의 코파델레이 홈경기에서 후반 14분에 교체 투입된 메시는 후반 28분과 45분 2골을 터뜨려 팀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메시는 그야말로 득점기계였다. 메시가 올 한 해 출전한 69경기 중에서 골을 터뜨리지 않은 경기는 23경기에 불과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과 국가 간 친선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대표로 출

전해 모두 9경기에서 12골을 터뜨린 메시가 제 진가를 모두 발휘한 무대는 프리메라 리가였다.

그는 2012년에 치른 정규리그 38경기에서 59골(경기당 1.55골)을 터뜨린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2월18일 발렌시아와의 홈경기과 5월5일 에스파냐와의 홈경기에서는 4골씩을 꽂아 넣었고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만도 4번에 이른다.

3월7일, 유럽 최강의 클럽이 몰리는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을 상대로 5골을 몰아쳐 세계를 놀라게 했다.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메시가 터뜨린 골은 11골(12경기)이다. 한 해 동안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메시가 골을 터뜨린 경기 중에서

소속팀이 진 경기는 11월7일 셀틱(스코틀랜드)과의 2012-2013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1-2패)와 8월29일 레알마드리드와의 슈퍼컵 2차전을 포함, 단 2경기뿐이다.

바르셀로나와 아르헨티나 소속으로 2012년에 상대한 37팀 중에서 메시가 골을 넣지 못한 팀은 박주영의 소속팀 셀타비고(스페인)를 비롯해 벤피카(포르투갈), 첼시(잉글랜드), 비야레알(스페인) 등 클럽 팀과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 팀 밖에 없다.

메시의 2012년 공식 경기 일정은 22일 바야돌리드전이 마지막이었다.

올해 골 행진은 91골에서 멈췄지만, 그는 휴식을 취한 뒤 1월6일 에스파냐와의 정규리그 홈경기를 시작으로 2013년 골 행진에 시동을 건다.

연합뉴스

## 광주 FC 선수들 이동 시작?

김동섭 성남으로 옮겨

이승기 등 이적설 솔솔

광주 FC의 이동이 시작됐다.

광주 FC의 공격수 김동섭(사진)이 내년 시즌 성남 일화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섭은 안익수 감독 체제로 새 진영을 꾸린 성남의 러브콜을 받으며 이적료 8억원에 동지를 옮기게 됐다. 2부리그로 강등된 광주의 첫 이적생이다.

예고됐던 광주의 이동이다.

K리그 막내 광주는 올 시즌 강등권에 처 시즌을 마감하면서 내년 2부리그에서 시즌을 맞는다.

주전급 선수들에게 2부리그는 '불확실한 무대'다. 몸값 하락의 우려와 함께 대표팀 차출 등의 기회가 줄어들다는 점에서 선수들은 이적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2014시즌 1부리그 진입이 최우선 목표인 광주로서는 전력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김동섭에 이어 수비수 김수범의 이적



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지만 올 시즌 수비 불안에 발목이 잡힌 광주는 '김수범 사수' 입장이다.

공격수 박기동과 올 시즌 신인왕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수비수 이한샘도 다른 팀에서 눈여겨 보는 자원.

하지만 두 선수도 광주에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주양과 울로·복이 두 외국인 선수에 이어 김동섭이 떠나면서 기존 공격진이 와해 된 만큼 광주는 박기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한샘도 올 시즌 신인왕이었던 광주의 이적 움직임이 겨울 그라운드

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홍명보 지도자 연수 스승은 히딩크 감독

러시아 안지 코치로 활동 팀 운영 경험 쌓기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축구 사상 첫 동메달 획득의 영광을 이끈 홍명보(43·사진)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영원한 스승'인 거스 히딩크(66) 감독으로부터 지도자 수업을 받는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22일 "올림픽을 끝내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유럽 클럽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기로 결심했다"며 "팀을 고르는 과정에서 히딩크 감독과 연락이 돼 안지 마하치칼라(러시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과 히딩크 감독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대표팀의 주장과 사령탑으로 사제의 인연을 맺었고 4강 신화를 함께 이뤘다.

홍 감독은 "아직 구단의 허락을 받지 못해 100% 성사된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로서 더 성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싶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도자 연수를 받으려면 직접 클럽에 들어가서 함께 맘을 흘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원칙"이라며 "이번 기회가 지도자 생활의 마지막 파도를 맞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 감독은 안지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로 활동하면서 팀 운영의 노하우와 경기를 준비하는 방법, 경기분석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안지에는 '프리킥의 마법사'인 호베르투 카를루스와 '득점기계' 사뮈엘 에토 등 정상급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특히 안지를 이끄는 히딩크 감독은 최근 이번 시즌을 끝으로 지도자 은퇴를 선언한 터라 홍 감독으로서 히딩크 감독의 비법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홍 감독은 구단의 허락이 떨어지는 대로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진행되는 팀 전지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모태범 '질주 본능' 23일 오후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KB금융 스피드 스케이팅 챔피언십 2012' 스피리트 남자부 500m 경기에서 모태범(대한항공)이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QPR 레드냅 감독 "몸값 못하는 스타 많다"

박지성 등 겨냥 비판 목소리

잉글랜드 프로축구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의 해리 레드냅 감독이 올 시즌 팀에 가세한 스타들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레드냅 감독은 뉴캐슬과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패한 뒤 가진 인터뷰에서 "QPR에는 그들 가치, 능력, 팀 기여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는 선수들이 많다"고 비난했다고 야후 스포츠가 23일 보도했다.

내년 1월 시작하는 겨울 이적시장을 앞두고 레드냅 감독은 "구단은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구단이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레드냅 감독은 11월에 지휘봉을 잡은 이후 박지성, 에스테반 그라네로, 지브릴 시세, 조세 보싱와 등 빅클럽에서 비싼 몸값으로 영입한 스타들을 전열에서 배제하고 벤치에 앉혔다. 대신 제이미 매키, 클린트 힐, 손 데리 등 터줏대감들을 주전으로 끌어올리면서 무한한 신뢰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 김보경 선발 활약 ... 카디프시티 챔피언십 선두 질주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의 카디프시티가 김보경이 선발로 활약한 가운데 리그 선두를 달렸다.

카디프시티는 22일(현지시각) 영국 레스터의 키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시티와의 2012-2013 챔피언십 23라운드 원정경

기에서 전반 25분 크레이그 벨라미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승리했다.

김보경은 선발로 출전, 후반 10분까지 뛰었으나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했다.

이날 승점 3을 추가한 카디프시티는 승점 47로 리그 선두를 달렸다.

연합뉴스